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 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한 눈에 보는 펀드 현황 (2022.10.17. 기준)

신영마라톤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은 자산의 30% 이내에서 저평가된 가치주에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산가치의 증식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펀드입니다.

3개월 운용경과

- ✓ 인플레이션과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공존함에 따라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
- ✓ 낙폭과대 개별주를 일부 추가 매수하고, 미디어 섹터와 반도체 섹터 비중 소폭 올림
- ✓ (채권) 금리매력 높은 2년물을 매매하고, 가격매력이 생긴 특수채와 카드채에서 매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 보수적인 기초 유지하면서, 최악의 상황과 그 이후 펼쳐질 국면에 대한 고민 필요
- ✓ 낙폭이 큰 기업들 중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기업들 매수할 기회인 것으로 판단
- ✓ (채권) 경기지표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레벨에 따라 듀레이션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계획

펀드 수익률 현황



투자대상 업종 상위 5 (%)	투자대상 종목 상위 5 (%)
<p>전기전자 34.70</p> <p>금융업 11.03</p> <p>화학 8.69</p> <p>코스닥 8.14</p> <p>철강및금속 7.24</p>	<p>국고01875-2412(21-10) 26.44</p> <p>국고01125-2406(21-4) 26.40</p> <p>하나은행45-090이2갑-08 9.12</p> <p>삼성전자 5.10</p> <p>SK하이닉스 1.09</p>

신영마라톤30증권투자신탁 (채권혼합)

자산운용보고서

운용기간 : 2022.07.18. ~ 2022.10.17.





CONTENTS

신영자산운용이 투자자에게 드리는 자산운용보고서



》 자산운용보고서 공지사항

1. 고객님의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현행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신영마라톤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자산운용회사인 신영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 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약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약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각종 보고서 확인:
- 신영자산운용 홈페이지(<http://www.syfund.co.kr>) → 펀드정보 → 펀드명 검색 → 자산운용보고서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http://dis.kofia.or.kr>) → 펀드공시 → 보고서 선택 → 자산운용보고서 선택 → 펀드명 검색 → 조회
3. 이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 전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 확인 및 고객정보 변경 처리는 펀드를 가입하신 판매회사의 지점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메일로 자산운용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객님의게 발송해드리고 있으며, 이메일 수령 신청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산운용 보고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전환 신청은 가입하신 판매회사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펀드 현황

- 운용경과
-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1. 펀드의 개요

- 기본 정보
- 재산 현황
- 펀드의 투자전략

2. 수익률 현황

- 기간(누적) 수익률
- 손익현황

3. 자산 현황

- 자산구성 현황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4. 투자운용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 총보수-비용 비율

6. 투자자산 매매내역

- 매매주식 규모 및 회전을
-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7. 동일할[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현황

- 투자현황

8.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 가. 유동성 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 나. 주요 위험 관리 방안
- 다. 자전거래 현황
- 라. 주요 비상대응계획

<참고 - 펀드 용어 정리 >

대표이사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이를 막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9년 말에 발생한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찾아들고는 있으나 아직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연초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도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세계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위기 속에서 좋은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고 지금이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까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마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들이 펼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한 무제한 돈풀기는 곳곳에서 자산버블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제한되면서 소비경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사회는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각국의 유동성 확대 정책,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혼란에 전쟁까지 겹치며 상반기 동안 예상보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아직도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급격한 금리인상이 진행되면서 자산버블도 꺼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주식시장은 연초 이후 큰 폭의 하락세가 진행되었고 각국의 부동산 시장도 하락세가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은 경기에 대한 부담으로 그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미국 달러화만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은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마저 둔화되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소비경기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금리가 오르면서 종부세를 비롯한 재산세 부담과 대출이자 부담, 대출 부실화 우려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계 경제 여건으로 주식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사는 흔들리지 않고 낮은 가격과 시간에 투자하는 우량주 장기투자 철학을 견지하며 일관성 있게 자산운용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가상화폐, 고성장주 투자가 대세이고 진리로 여겨졌지만 자산 시장은 항상 주기적으로 순환하면서 결국은 시장은 자산 본연의 가치를 반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소수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상을 읽는다면 큰 손실을 피하고 위기 가운데서도 좋은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여건이지만 오히려 지금이야 말로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배당수익률도 높은, 사고 발 뺀고 편안히 잘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을 어느 때보다도 대량으로 낮은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주는 시장의 흐름에 연동하여 움직이는 주식들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재평가되거나, 기업이 변할 때, 또는 실물경기의 변화가 예상될 때, 급격한 가격상승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이 불확실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가치주 투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아래는 막아놓고 상방은 무한대로 열어 놓는 투자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금리 자산은 장기 투자하더라도 정해진 금리 이상의 것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량 가치주의 시세는 바닥, 펀드시장에서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비중은 최저, 배당수익률은 최고인 지금이 바로 놓치기 어려운 투자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신영자산운용은 항상 무한한 책임감으로 고객님의 자산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자산운용을 믿고 소중한 자산을 맡겨 주신
고객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

허남권



안내사항

신영자산운용은 당사 유튜브에서 당사의 투자전략 및 상품과 시장에 대한 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고객님의 투자판단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QR코드 인식 가능 앱(예 : 카메라,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이용하여 우측의 QR코드를 비추시면 당사 유튜브로 연결됩니다.



운용 경과

신영마라톤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1.47%로 비교지수 수익률 -1.40% 대비하여 -0.07%p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비교지수(벤치마크): KOSPI 27% + KIS중단기지수(1~2년) 63% + Call 10%)

[주식 부문]

지난 분기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상반기 주식시장의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7,8월 2개월간 주식시장은 잠깐 반등하였으나, 9월에는 다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물가가 안정될 것처럼 보였고, 이에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안도感が 펼쳐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면서 나온 경제 지표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물가는 안정되지 않았고 미국의 고용시장은 계속해서 견조한 것처럼 보이면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중앙은행이 완화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의 가파른 상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 체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유럽과 아시아는 계속해서 에너지 위기, 경기 둔화를 겪고 있어 달러 강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 보유국들의 경제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 분기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고 수요가 악화되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IT와 화학 등 경기민감주의 하락폭이 컸고, 주식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그동안 높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던 SW업종도 추가 조정폭이 컸습니다. 반면 그동안 소외받았던 내수주, 여행 재개가 본격화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그나마 선방하거나 소폭 상승하였고, 에너지 안보가 증시됨에 따라 에너지 관련주, 2차 전지, 방산주 등이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동기간 펀드는 BM 수준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펀드에서는 낙폭과대 개별주를 일부 추가 매수했으며, 미디어 섹터와 반도체 섹터의 비중을 소폭 올렸습니다.

[채권 부문]

8월 초 국내시장은 한은 총재가 8월 빅스텝(50bp)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한 부분과 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코멘트로 대외긴축 우려가 확대되며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7월 물가상승률이 시장예상치인 6.3%에 부합했고 BOE(영국 중앙은행) 회의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금리상승은 거의 되돌려졌습니다. 월 중순에는 미 CPI(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 발표 되었지만 오히려 23년 금리인하 기대감 하락과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제기되며 금리는 장기를 위주로 상승하여 베어 스티프닝(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현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7월 FOMC(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과 유럽의 높은 물가로 선진국 긴축우려가 부각되면서 금통위를 앞두고 외국인 선물 순매도가 이어졌고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운용 경과

9월 초 국내시장은 미국 8월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이후 긴축우려가 소폭 완화되는 등 금리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호주가 네 번 연속 50bp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향후 금리인상 속도조절을 얘기했고 전체적으로 선진국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국내금리도 하락했습니다. 9월 미 FOMC에서는 시장예상대로 기준금리를 75bp인상했으나 점도표 상 올 해와 내년 금리수준을 각각 4.4%, 4.6%으로 크게 상향조정하면서 미국금리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FOMC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고 한은총재의 매파적인 코멘트에 국내시장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50bp인상 및 한국 최종 기준금리 3.75% 가능성을 빠르게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말에는 보수당 집권 이후 영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며 영국재정 악화 우려에 따른 영국국채 금리 급등과 파운드화 약세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국내금리도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4.5%를 돌파하자 한은과 기재부가 채권시장에 5조를 투입하면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10월 초 국내시장은 영국발 스트레스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향후 고물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매파적인 뷰를 제시했고 한은총재도 추가 빅스텝 가능성을 언급해 시장은 금리인상 베팅이 일어나며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영국이슈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미 CPI경계심으로 금리상승 압력이 높아졌지만 10월 금통위에서 25bp인상 소수의견이 나오고 미 연준에 따른 기계적 기준금리 조정 전략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시장은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월 중순 이후 국고채 시장은 대외 CPI 지표 서프라이즈가 계속되며 긴축정책 강화 우려가 계속되었고 레고랜드 ABCP 디폴트 여파로 신용시장의 유동성 여건이 급격하게 냉각되었습니다. 금융위에서 1.6조원의 채안펀드를 시작했지만 시장 약세는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기재부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규모로 확대했고, 한은이 적격담보 증권에 은행채와 일부 공사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증권사와 증권금융 대상으로 6조원 수준의 RP매수를 진행한다는 정책을 연달아 결정하자 시장의 극단적인 불안감과 유동성 마비 상황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시점, 국내외 경기지표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을 모니터링하며 운용 전략의 실행 기회를 모색해 나갔습니다. 국내물가가 정점을 기록한 후 둔화되기 시작했고 국고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3.50~3.75% 수준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듀레이션을 소폭 늘리고, 높은 캐리이익을 확보하고자 1년 내외의 단기 기물을 금리매력이 높은 2년물로 교체 매매하는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펀더멘털 대비해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높아져 가격매력이 생긴 특수채와 카드채에서 매수기회를 찾고자 했습니다.

투자 환경 및 운용 계획

[주식 부문]

큰 추세에서는 기간적으로 길고, 낙폭이 큰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9월을 거치면서, 물가는 장기간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며,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강력한 긴축정책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시장에 지배적인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나름 큰 변화입니다. 올해 내내 중앙은행은 선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는 경제지표에 후행적으로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장 다음 분기에 얼마나 강하게 긴축을 해야 할지, 혹은 긴축을 계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도 예측이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매월 새로운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바뀌는 듯한 불확실한 환경에 놓여있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긴축을 중단할 것이라는 선제적인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경제지표의 흐름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2년간 경제가 크게 호황을 보였던 것에 비해, 연초부터 수요 둔화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2분기부터는 구매관리자지수 등의 선행지표도 하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지표, 서비스업지수 등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 구직난보다는 구인난이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경제지표가 안 좋게 발표되면 주식시장이 반등했다가, 좋게 발표되면 다시 긴축의 공포와 함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난 9개월과는 다른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의 기대치가 변했습니다. 이제 고물가가 장기간 지속되고, 높은 금리, 긴축 통화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중앙은행이 언제든 주식시장을 구원해줄 것이라는 선부른 기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경제지표가 명확히 안 좋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용지표는 좋게 나오고 있으며, 제조업 지표가 악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기준선 위에 있고, 지난 상반기의 GDP가 연달아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일시적인 요인들 때문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물가 속에 미국의 소비는 부진하고, 코로나 기간에 쌓인 과잉재고로 인해 제조업과 유통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는 기업들의 고용축소와 대규모 해고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연동하여 기업의 실적발표 기간도 지난 2분기와는 다를 것입니다.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은 우려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오히려 주식시장 반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용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과 수요 측면에서의 소비 둔화가 기업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 시차로 인해 재고의 증가, 가격의 하락, 가동률의 둔화 등이 관측되면서 후행적으로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지표와 기업실적이 모두 일관되게 악화되고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면, 중앙은행의 과도한 긴축이 문제가 되고 긴축의 고삐가 다소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좋다는 것을 이유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례적인 속도로 빠르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나라들은 경제가 미국만큼 탄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출, 환율 관리 등을 근거로 같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금리는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줍니다.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도 금리를 인상하는 유럽, 수출과 소비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펼칠 수 없는 아시아 모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지속된 저금리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만큼, 급격한 금리인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질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투자 환경 및 운용 계획

이를 테면 영국에서 9월말 연금의 파산 위기가 부각되면서 갑작스럽게 채권을 매입한다고 발표했고, 일본에서는 중앙은행이 환율개입에 나서면서 엔화 가치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선거에서는 극우정당이 다수당이 되었으며, 크레딧 스위스 등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문제도 여전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기나긴 하락장과 빠른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자신감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현실 경제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바닥을 다졌다고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침이 밝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번 4분기가 기나긴 하락장에서 최악을 지나가는 국면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명확해지면, 해결책을 모색하게 됩니다. 수요가 둔화되어 재고가 쌓이면 생산을 줄이고 재고를 할인 판매할 것이며, 에너지가 부족하면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정치와 제도가 바뀔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고물가도, 전쟁도 쉽게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점점 적응하면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최악의 상황과 그 다음에 펼쳐질 국면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의 제조업에는 중장기적 기회 요인이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중에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을 논하긴 선부르지만 주가의 하락이 빨랐던 반도체 산업이 반등구간에서의 상승도 빠르진 않을지, 성장주 중에서 밸류에이션은 합리적으로 내려왔지만 기업의 내용은 변하지 않은 종목이나 산업은 없는지 고민하고 대비하겠습니다.

[채권 부문]

월 초 FOMC에서 미 기준금리는 75bp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긴축정책 스탠스가 11월 시장과 월말 국내 금통위의 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최근 캐나다와 호주가 금리인상 속도조절에 나선 가운데 경기지표들이 지속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미국도 점차 긴축속도 조절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유지하면서 후행지표인 고용 등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시장심리는 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월 금통위는 기준금리 50bp 인상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신용이벤트 발생으로 국내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만큼 25bp 인상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국내 물가도 둔화되고 경기지표는 이미 악화 중이기에 한국도 금리인상기 후반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내시장에서 은행채, 공사채 발행비중 확대로 우량채권 크레딧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유동성 대책을 감안할 때 공적기능이 높은 우량 공사채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1월은 미국과 한국 기준금리 결정과 향후 방향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사는 경기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금리 레벨에 따라 듀레이션(주1)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주1) 듀레이션(Duration) :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률을 측정하는 수치입니다. 듀레이션이 클수록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폭이 증가하며, 반대로 듀레이션이 작을수록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이 변동폭이 감소합니다.

1. 펀드의 개요

기본 정보

펀드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투자위험등급	고난도펀드
신영마라톤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50023	4등급	해당하지 않음
신영마라톤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형	AR640	(보통위험)	
펀드종류	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최초설정일	2005.07.18.
운용기간	2022.07.18. ~ 2022.10.17.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레버리지 (차입 등) 한도	-		
자산운용회사	신영자산운용	펀드재산보관회사	국민은행
판매회사	신영증권, 대신증권 외 9개사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품의 특징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30% 이하를 저평가된 우량가치주 등에, 70% 이하를 안정적이며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목돈 마련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자산가치의 증식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펀드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재산 현황

(단위: 백만원, 백만좌, %)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2022.07.17.)	당기말 (2022.10.17.)	증감률
신영마라톤30증권 (채권혼합)운용	자산 총액 (A)	5,487	5,439	-0.88
	부채 총액 (B)	33,532	19,822	-40.89
	순자산총액 (C=A-B)	5,487	5,439	-0.88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5,191	5,237	0.88
	기준가격 ^{주)} (E=C/D×1000)	1,056.92	1,038.51	-1.48
종류(Class)별 기준가격 현황				
신영마라톤30증권 (채권혼합)C형	기준가격	1,029.56	1,010.73	-1.83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주) 상기 재산현황에서 기준가격의 증감률은 펀드의 수정기준가를 통해 계산된 수치가 표기됩니다.

2. 수익률 현황

기간(누적) 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신영마라톤30증권 (채권혼합)	-1.47	-5.94	-7.43	-6.76	0.53	4.97	4.43
(비교지수 대비 성과)	-0.07	-0.78	-0.39	1.21	1.39	0.40	0.95
종류(Class)별 현황 ^{주2)}							
신영마라톤30증권 (채권혼합)C형	-1.82	-6.60	-8.40	-8.06	-2.20	0.71	-2.49
(비교지수 대비 성과)	-0.42	-1.44	-1.36	-0.09	-1.34	-3.86	-5.97
비교지수 ^{주1)}	-1.40	-5.16	-7.04	-7.97	-0.86	4.57	3.48

주1) 비교지수(벤치마크): KOSPI 27% + KIS중단기지수(1~2년) 63% + Call 10%

주2)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예금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270	7	0	-4	0	0	0	0	5	0	-261
당기	-50	-36	0	-1	0	0	0	0	5	0	-82

※ 전기: 2022.04.18.~2022.07.17. / 당기: 2022.07.18.~2022.10.17.

3. 자산 현황

자산구성 현황

(단위: 백만원, %)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00)	1,546 (28.42)	3,370 (61.96)	0 (0.00)	12 (0.22)	0 (0.00)	0 (0.00)	0 (0.00)	0 (0.00)	108 (1.99)	403 (7.41)	5,439 (100.00)
합계	1,546	3,370	0	12	0	0	0	0	108	403	5,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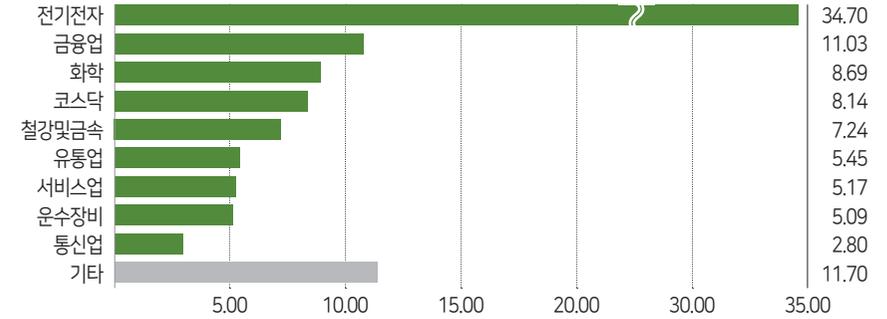
* (): 구성비중

자산별 구성비중



※ 위의 결과는 해당 자펀드의 실제 자산보유 내역을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펀드의 자산구성 내역을 해당 자펀드가 각 모펀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안분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익증권 기준으로 작성한 결과와 비교하여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 위 업종구분은 한국거래소의 업종구분을 따릅니다.

투자대상 업종 상위 10

(단위: %) ▾

순위	업종명	비중	순위	업종명	비중
1	전기전자	34.70	6	유통업	5.45
2	금융업	11.03	7	서비스업	5.17
3	화학	8.69	8	운수장비	5.09
4	코스닥	8.14	9	통신업	2.80
5	철강및금속	7.24	10	기타	11.70

- 각 자산별 보유 내역 -

※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를 초과하는 종목을 기재합니다.

주식

(단위: 주, 백만원, %) ▾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발행국가	통화	업종	비고
삼성전자	4,900	277	5.10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SK하이닉스	625	60	1.09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고려아연	87	54	0.99	대한민국	KRW	철강및금속	
삼성SDI	71	43	0.79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삼성물산	369	41	0.75	대한민국	KRW	유통업	

채권 (단위: 백만원, %)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국고01875-2412(21-10)	1,500	1,438	대한민국	KRW	2021.12.10.	2024.12.10.		N/A	26.44
국고01125-2406(21-4)	1,500	1,436	대한민국	KRW	2021.6.10.	2024.6.10.		N/A	26.40
하나은행45-09012갑-08	500	496	대한민국	KRW	2022.9.8.	2024.9.8.		AAA	9.12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백만원, %)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국민은행	2011.3.27.	108	2.53		대한민국	KRW

※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단위: 백만원) ▼

종류	평가금액	비고
REPO매수	400	

※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① 4. 투자운용인력 현황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

성명	직위	출생연도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 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허남권	책임운용역	1963	74	3,387,364	1	1,061	2109000131
심창훈	책임운용역	1975	46	973,971	0	0	2110000545
고도희	부책임운용역	1983	18	273,024	0	0	2109001481
최형승	부책임운용역	1989	15	245,049	0	0	2114000014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 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

구분	기간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역	2005.07.18. ~ 현재	허남권
책임운용역	2018.07.26. ~ 현재	심창훈
부책임운용역	2021.04.29. ~ 현재	최형승
부책임운용역	2022.08.26. ~ 현재	고도희
부책임운용역	2020.05.26. ~ 2022.08.25.	김준영
부책임운용역	2021.04.01. ~ 2021.04.28.	최민아
부책임운용역	2019.05.03. ~ 2021.03.31.	이청효
부책임운용역	2019.05.03. ~ 2020.05.25.	이청운

※ 최근 3년간의 투자운용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5. 비용 현황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전기 2022.04.18.~2022.07.17		당기 2022.07.18.~2022.10.17	
	금액	비율 ^{주1)}	금액	비율 ^{주1)}
	자산운용사	0	0.00	0
판매회사	0	0.00	0	0.00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신영마라톤30 증권(채권혼합)	0	0.00	0	0.00
보수합계	0	0.00	0	0.00
기타비용 ^{주2)}	0	0.00	0	0.00
매매·중개 수수료	1	0.01	0	0.01
단순매매·중개수수료	1	0.01	0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1	0.01	1	0.01
증권거래세	1	0.01	0	0.01
자산운용사	6	0.11	6	0.11
판매회사	13	0.22	13	0.23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0	0.01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신영마라톤30 증권(채권혼합) C형	20	0.34	19	0.35
보수합계	20	0.34	19	0.35
기타비용 ^{주2)}	0	0.00	0	0.00
매매·중개 수수료	1	0.01	0	0.01
단순매매·중개수수료	1	0.01	0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1	0.01	1	0.01
증권거래세	1	0.01	0	0.01

주1)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주2)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사항 없음 / ※ 발행보담금내역: 해당사항 없음

총보수·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

구분		총보수·비용비율 ^{주1)}		매매·중개수수료 비율 ^{주2)}		합계(A+B)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신영마라톤30증권 (채권혼합)	전기	0.0029		0.0434		0.0463
	당기	0.0033		0.0404		0.0437
종류(Class)별 현황						
신영마라톤30증권 (채권혼합)C형	전기	1.3823		0.0435		1.4258
	당기	1.3823		0.0405		1.4228

주1)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 전기: 2022.04.18.~2022.07.17. / 당기: 2022.07.18.~2022.10.17.

6. 투자자산 매매내역

매매주식 규모 및 회전을

(단위: 백만원, %) ✓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 ^{주)}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8,141	332	5,981	175	11.30	44.83

주)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금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냅니다.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

2022.01.18. ~ 2022.04.17.	2022.04.18. ~ 2022.07.17.	2022.07.18. ~ 2022.10.17.
10.55	16.72	11.30



7. 동일한 집합투자업자 펀드 투자현황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 현황		투자대상	보유비율
집합투자기구명	발행총수(A)	집합투자증권 보유수(B)	(=B/A*100(%))
해당 내역 없음			



8.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가.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운용전략 특성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 등

- 주식이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본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 신용위험 :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 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이 모든 위험을 포함하지는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매중단 등 위험발생사유 또는 위험발생가능성 판단 사유

이 투자신탁은 기준일 현재 환매중단 등의 위험발생 및 위험발생가능성이 없습니다.

나. 주요 위험 관리 방안

펀드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안 등

[컴플라이언스 수행 체계]

이 투자신탁의 컴플라이언스 점검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전 점검 : 주문 및 매매단계에서 사전컴플라이언스 점검시스템을 통해 운용상 제한사항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합니다. 시스템은 법규, 규약, 내규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제코드화 하고, 규제등급을 지정하여 점검합니다.

- 장중 점검 : 주문체결 진행 중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위반사항을 점검합니다. 위반사항 발생시 가능한 당일 즉시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최종 점검 : 매일 오전 9시 이전에 전일 매매분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준수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최종 점검결과 위반사항 발생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 즉시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주요 위험 관리 방안

펀드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안 등

[위험관리 수행 체계]

- 펀드 내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점검을 위해 베타, 보유 종목별 평균거래량 대비 보유비율, 전량매도 최소예상기 일, 채권 자산 듀레이션, 신용등급별 보유비율, 발행주체별 보유비율 등의 위험지표를 활용하여 펀드 내 리스크 수준을 측정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 전체 집합투자재산 및 각 개별 투자신탁의 펀드 유형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으로 분류하여 위험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펀드의 위험 수준 및 위험허용한도 위반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간접펀드 등 위험관리조치 내역 및 운용사의 통제권한·수단 등

이 투자신탁은 재간접펀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매중단, 상환연기 등과 관련된 환매재개, 투자금상환 등의 방안 및 절차 등

이 투자신탁은 환매중단, 상환연기 등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투자신탁입니다. 만약, 해당사항 발생시 규약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자전거래 현황

자전거래규모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	-	-	-

최근 1년간 자전거래 발생 시, 자전거래 발생 사유, 관련 펀드간 이해상충등 방지를 위한 실시간 방안, 절차 등

해당 내역 없음

라. 주요 비상대응계획

주요 비상대응 계획

위기상황 발생 기준에 대한 위험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 대응 업무처리방침을 통해 위기상황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펀드의 주요위험요소 및 유동성을 점검하며 위기대응을 실시합니다.

펀드용어해설



용어	내용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펀드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펀드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펀드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펀드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펀드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불립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 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자형펀드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주식형펀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 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권 및 설명, 투자 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운용의 안정성과 펀드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